역사가에게 묻다

초판1쇄 인쇄 2011년 10월 15일
초판1쇄 발행 2011년 10월 20일

지은이 김효순
펴낸이 이영선
펴낸곳 서해문집
이 사 강영선
주 간 김선정
편집장 김문정
편 집 허 승 임경훈 김종훈 김경란 정지원
디자인 오성희 당승근 안희정
마케팅 김일신 이호석 이주리
관 리 박정래 손미경

출판등록 1989년 3월 16일 (제406-2005-000047호)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498-7
전 화 (031)955-7470 | **팩스** (031)955-7469
홈페이지 www.booksea.co.kr | **이메일** shmj21@hanmail.net

© 김효순, 2011

ISBN 978-89-7483-492-0 039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1004149)

● 이 책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저술 출판되었습니다.

역사가에게 묻다

굴절된 한일 현대사의 뿌리 찾기

김효순 지음

서해문집

차례

추천사 5

들어가는 글 7

1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일본인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23

인터뷰> 28

장면1>조선인 학살 주체 명시한 추도비 건립 63

장면2>삼중 차별에 시달린 재일동포 여성 한센인 69

2 강덕상姜德相

"재일 조선인의 역사 연구는 뿌리 찾기다" 83

인터뷰> 89

장면1>조선사 연구의 기인 야마베 겐타로와 김천해의 인연 114

장면2>도쿄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133

3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시대가 연구자보다는 활동가를 원했다" 137

인터뷰> 142

장면1>호즈미 가문과 우방협회 173

장면2>일본 군국주의와 싸우다 김일성에 경도된 데라오 고로와 후루야 사다오 181

장면3>가쿠슈인 대학과 동양문화연구소, 우방문고 199

장면4>북한에서 사라진 재일동포 사학도 김종국 202

4 조동걸趙東杰

"대학에서 근현대사 강의가 없었던 것 자체가 비극이다" 207

인터뷰> 211

5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해 필사적으로 역사 기록 남긴다" 233

인터뷰> 241

장면1>아소 가문과 조선인 강제연행 261

장면2>조선인 유골 더미 위에 세워진 아소의 골프장 272

장면3>관광특수 누리는 가미카제특공회관 279

6 김광열金光烈

"평생 찾아다닌 강제연행 기록, 이제 누가 하나?" 285

인터뷰> 292

장면1>유골 조사에 앞장선 일본 불교 종단 조동종 314

장면2>해방 공간에서 쫓겨 다닌 독립운동가, 김선기와 박진목 322

7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

"도쿄 군사재판에서 식민지 문제는 완전히 빠졌으니……" 331

인터뷰> 336

장면1>포로감시원과 포로의 화해 1_이학래와 던롭 364

장면2>포로감시원과 포로의 화해 2_박병숙과 바커르 376

장면3>한류로 한일 현대사를 배우는 일본 여성 386

8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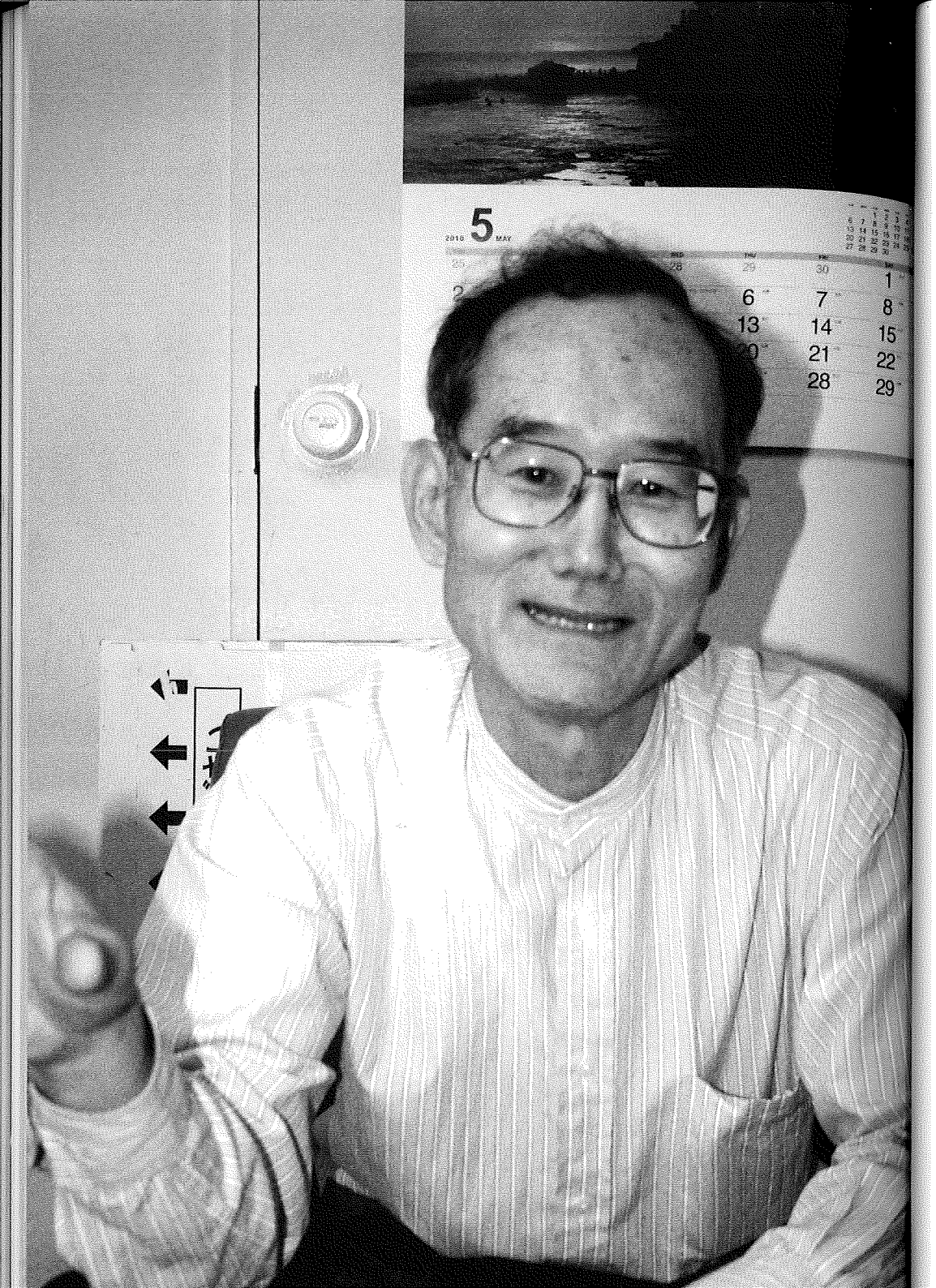
"한일 시민단체, 과거사 문제 공유해야"

인터뷰> 398

장면1>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조선인 노동자상'과 고베 항 '평화비' 413

장면2>히타치 취직 차별 사건과 재일동포 활동가 김영달의 죽음 421

인명 찾기 431



히다 유이치
飛田雄一

1950년 출생
1978년 고베 대학 농학부 대학원 석사
1978년 고베 학생청년센터 주사
1991년 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공동 대표

저서

《일제하 조선 농민운동》(1991)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자료집》
(1990~1994, 매년 간행, 공편)
《15년 전쟁 중요 문헌 시리즈 12집, 특수 노무자의 노무관리》
(1993, 편저)

효고 현에 있는 고베 시는 일본 유수의 국제 무역항이다. '특정 중요 항만', '슈퍼 중추 항만'으로 지정됐고, 일본 3대 여객항의 하나다. 항구로서의 명성은 역사가 깊다. 옛날 중국의 당, 송과 교역할 때도 중심 역할을 했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는 쇄국 정책으로 국제 무역항의 기능을 잃었지만, 내항으로서의 위치는 건재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는 기항지의 하나였다.

고베가 다시 항구로서 명성을 되찾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제국주의 시대 미국의 '함포 외교'의 여파였다. 동인도 함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페리Matthew C. Perry 제독은 1852년 11월 일본을 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페리 제독은 바로 필모어 Millard Fillmore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버지니아 주의 노퍽 항을 출항했다. 그가 이끈 함대는 대서양을 횡단해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배지였던 세인트헬레나 섬을 지나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았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류큐 왕국(오키나와) 등을 거쳐 1853년 7월 우라가浦賀 앞바다에 나타났다. 도쿠가와 막부를 충격에 빠뜨린 검은 군함 '흑선黑船'의 출현이다.

페리는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류큐로 돌아갔다가 1954년 2월 일곱 척의 군함을 이끌고 다시 나타나 개국을 강요했다. 3월에 당시 어촌이었던 요코하마에서 불평등 조약인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에 따라 도쿠가와 막부는 미국 선박에 연료와 식료품 등을 공급하고, 하코다테函館와 시모다下田 두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했다.

4년 뒤인 1858년 7월 항구를 추가 개방하고, 영사재판권 등을 인정하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가나가와(요코하마)와 나가사키는 1859년, 니가타는 1860년, 효고(고베)는 1863년에 개항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고는 천황이 있는 교토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막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일어 연기됐다가 1868년 1월 1일 부로 개항했다. 일본이 구미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전승국의 위치에 올라선 이후에야 폐기, 개정됐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기 전에 일으킨 운요호 사건이나 강화도조약은 모두 구미 열강에게 당했던 것들을 이웃나라에 악용한 셈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 고베에 '고베 학생청년센터'란 기구가 있다.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로 움직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회관 구실도 한다. 이름만 봐서는 평범한 지방 단체로 생각되지만, 일본의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아주 지명도가 높다. 재일동포 차별 등 인권 문제, 전후 보상이나 강제연행 희생자 조사 등을 다루는 시민운동에서 고베 학생청년센터의 이름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것도 수많은 단체 가운데 하나로 끼이는 게 아니라 본부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7월에 결성돼 활동에 들어간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도 이곳에 있다.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2004년 11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전후 보상 운동에 관여해온 일본의 활동가, 연구자, 단체들이 호응해서 만든 조직이다. 결성 총회는 도쿄의 재일 한국YMCA에서 열렸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에서 140여 명이 참석했다. 설립 취지문을 보면 양심적인 일본인으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올해 2005년은 전후 60돌을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2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바탕으로 하여 11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가 설립됐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이나 조사 기구는 본래 가해국인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해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 지배나 아시아 · 태평양전쟁의 역사적 사실 규명은 현재 우리에게 가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민중의 힘으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가 발족해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해국 일본뿐 아니라 자국의 인권 침해나 학살 사건 등 과거 문제의 진상 규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다시 민주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노력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 행위의 규명은 결코 자학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각 지역의 전문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자료 입수, 피해 사례 조사, 유골 소재 확인 등에 주요한 구실을 했다. 식민지 피해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기관과 일본 시민단체 사이의 연계 활동이 처음으로 실현된 셈이다.

2008년 초에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권위주의 시절 자행됐던 비리, 의혹, 의문사 사건 등을 다루는 여러 과거사 정리 위원회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조차 존폐 위기를 맞았다.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는 당시 한국의 시민단체 못지않게 사태의 추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는 과거사 정리 작업이야말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로 보고,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의 존속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 등 국내 정치권에 보내기도 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우쓰미 아이코 교수 등 3인의 공동 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초대 사무국장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대들보 역할을 했던 후쿠도메 노리아키가 맡았다. 일제 강점 100년을 맞아 두 나라를 오가며 분주하게 활동하던 후쿠도메는 아쉽게도 전남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직후 급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은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공동 대표도 맡고 있다. 고베에서 태어나 자란 고베 토박이를 자부하는 히다 관장은 고베 대학 농학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제하 조선 농민운동》 등의 책을 썼다.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본부가 왜 고베에 있나?

고베 학생청년센터는 조선인 문제와 관련된 역사가 제법 길다. 그리고 이곳의 '조선사 세미나'가 꽤 유명하다. 1972년에 시작했으니 거의 40년이 되어간다. 재일동포 실업가로 조선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한석희란 분이 있었다. 조선 관련 문헌 자료들을 모아놓은 '청구문고'를 만든 사람이다. 그가 대한제국의 멸망과 항일 투쟁을 다룬 매켄지Frederick Arthur McKenzie의 책 《의병 투쟁에서 3·1운동으로—조선의 자유를 위한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1920)을 일본어로 번역해 1972년에 책을 냈다. 그 출판 기념회를 이곳 센터에서 열었는데, 참석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선 역사 강좌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무렵만 해도 조선사 강좌는 대단히 드물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쓴 박경식 선생을 비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0년 8월 열린 제1회 교류 집회에 참석한 박경식(가운데) ©히다 유이치

롯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강연을 했다. 정경모, 김달수, 강재언, 김석범, 가지무라 히데키,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등도 왔다.

나도 박경식 선생의 제자다. 한글 강좌(조선어 강좌)는 1975년에 시작했다. 처음에는 초급 강좌만 있었으나 1년 뒤 중급·상급 강좌도 개설됐다. 1990년부터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연행 문제를 조사하는 시민단체들이 해마다 한 번씩 전국 교류 집회를 열었고, 그것이 1999년에 일단 끝났다. 지금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때도 여기가 사무국이었다. 그래서 고베뿐 아니라 전국 차원의 운동을 하게 됐다. 네트워크 결성 때도 후쿠도메 노리아키가 사무국을 여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

매켄지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한석희는 간사이 동포 사회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1926년 일곱 살 때 조선에서 오사카로 오게 된 그는 동포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 이쿠노生野에서 오래 살았다. 신발 공장 운영과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버는 한편, 조선의 역사와 기독교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조선 관련 문헌을 본격적으로 수집한 것은 1969년 무렵이다. 당시 매켄지의 책을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했는데, 일본의 공립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참고문헌이 거의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조선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1979년 '청구문고'라는 일종의 사설 도서관을 열었다. 이 문고는 간사이 지방에서 조선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라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었다. 당시 남과 북에서 간행된 각종 연구서, 잡지, 자료집 등을 갖춘 거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청구라는 이름은 재일동포 원로 역사학자인 강재언 교수가 작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희는 청구문고를 기반으로 박경식 등 동포 사학자들의 연구 모임을 적극 지원했다. 단지 재정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거의 모든 세미나에 출석해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했다. 그 자신도 기독교사 연구를 계속해《일본의 조선 지배와 종교 정책》,《일본의 만주 지배와 만주 전도회》등의 저서를 냈고, 도시샤同志社 대학에서 일본 교회의 만주 전도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인생은 7전 8기 — 나의 재일 70년》(1997)이 이와나미 서점에서 나왔다. 그가 평생 모은 약 3만 점의 청구문고 자료는 1996년 고베 시립 도서관에 기증돼 특별 컬렉션으로 따로 보관되고 있다. 고베 학생청년센터가 재일동포 문제와 연관된 운동이나 연구의 중심이 된 것은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동포 커뮤니티, 일본인 연구자나 활동가들의 헌신, 한석희 같은 동포들의 후원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어떻게 박경식의 제자가 되었나?

선생의 꿈은 일본 전역에서 강제연행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에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를 도쿄에서 만들었고, 1979년에 간사이 지방의 모임도 만들었다. 정식 명칭은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간사이 부회部會'로 청구문고에서 모임을 했다. 고베에 후원자가 있어 월 1회 모임을 가졌다. 1981년에는 조선민족운동사연구회가 시작됐다.

간사이 지방에서 조선인 문제 터지면 센터가 운동의 중심

재일동포 인권 운동을 수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가?

무엇이든 터지면 이곳이 중심이었다. 1980년대 지문 날인 반대 운동 때는 효고 현 연대회의 본부가 있었고, 1970년대 히타치의 재일동포 취직 차별이 있었을 때는 소송을 지원했다. 그 밖에도 공영 주택 입주, 연금 가입 문제 등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협의회(민투련民闘連)' 등이 구성되면 핵심 단체로 들어가 활동했다. 1970년대는 조선인 권익 인권 운동이 중심이었고, 1980년대는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이 거세게 진행됐다. 지금은 그런 쟁점들이 많이 사라진 반면, 새로운 현안들이 등장했다. 예전에 지문 날인 거부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스리랑카 등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 생활 보호 문제를 담당한다. 한국인 커뮤니티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져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온 '뉴커머(신재일동포)'가 많이 늘었다.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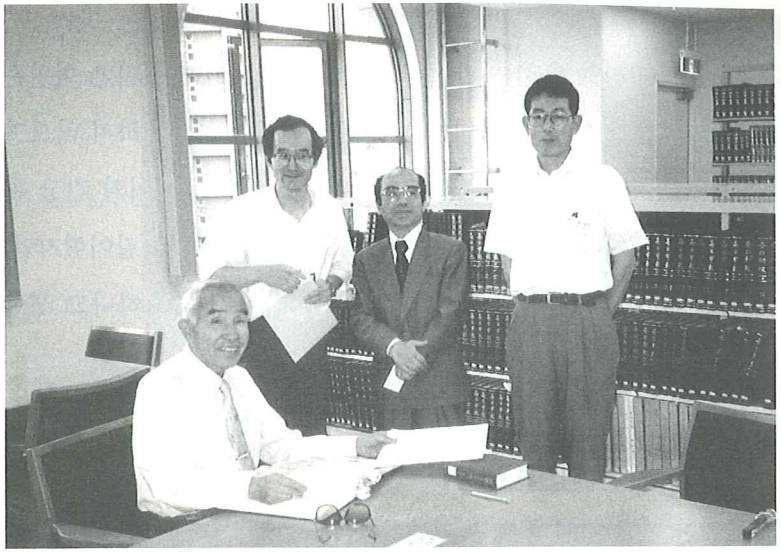
교 지원 논의도 한다. 한신 대지진(1995)으로 널리 알려졌던 고베에서 조선학교, 중국학교, 아메리칸 스쿨, 인도학교 등을 묶어 외국인 학교 지원 문제에 관한 공동 대응을 하니 주목을 끌었다. 관련 전국 집회를 고베에서 열기도 했다.

마치 운동의 백화점 같은 인상을 받는다. 센터의 정체가 궁금하다. 기독교와 직접 관계가 있나?

원래는 미국 남장로교회가 1955년에 대학생 선교를 위해 '롯코六甲● 그리스도교 학생 센터'를 만들었다. 10여 년 뒤 센터 운영이 일본 기독교단으로 넘어갔고, 다시 '사회파 목사'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기독교 학생 센터가 아니라 시민운동, 사회운동 센터로 하자는 구상이 추진됐다. 그래서 1972년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현 체제로 출범했다. 여기서 민주주의, 인권, 환경, 난민, 기독교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유스호스텔도 경영하고 회의실 대관 작업도 한다.

1993년 도쿄 특파원 시절 이 근처에 와서 김영달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재일동포의 귀화 문제를 취재하려고 전문가를 찾다가 그를 만났다. 창씨개명, 지문날인제도, 귀화 등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쓴 걸로 알고 있다. 저자 이름도 김영달로 표기돼 있어 귀화하지 않은 동포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일본인이라고 말해 놀란 기억이 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20대 초반에 귀화했다고 했다. 한국 이름은 재일동포 문제와 관련

● 고베 시에 있는 해발 931미터의 산이다. 고베의 상징처럼 쓰인다.



재일동포 실업가로 청구문고를 설립한 한석희(앉아 있는 이). 그 뒤로 히다 유이치, 한 사람 건너 김영달(맨 오른쪽)
ⓒ 히다 유이치

된 활동을 할 때만 쓴다고 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궁화(일본어로 무쿠게木槿)'회의 회원이기도 했다. 이 센터와 무궁화회는 어떤 관계가 있나?

무궁화회 사무실은 현재 이곳에 있지만, 원래는 1971년에 시작했다. 당시 베트남 반전운동을 벌인 베헤이렌 그룹에서 활동하던 젊은이들이 모여 재일 조선인 문제, 조선의 역사·문화·풍습을 배워보자고 해서 모였다. 내 집이 모임의 연락처로 쓰였는데, 내가 1978년 이 센터에 취직하고 나서 연락처도 이리로 옮겼다. 김영달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모임에 들어왔다. 무궁화회 회원들이 센터에서 하는 조선사 세미나에 참석해 중심 역할을 하곤 했다.●

무궁화회는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연합해서 출범한 것인가?

아니다. 코리안 뿌리를 가진 김영달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회원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그 무렵에는 일본인 입장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당시 자이니치와 일본인 사이의 긴장 관계가 대단했다. 인권 문제 같은 운동은 재일동포들과 같이했지만, 일본인 시각에서 재일 조선인 문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지금도 자이니치 회원은 없나?

회원이 아홉 명인데 모두 일본인이다. 하긴 무궁화회가 오사카 부 다카쓰키高槻 시에 또 하나 있다. 거기는 재일동포 중심이다. 그쪽은 '다카쓰키 무궁화회'라고 부르니까 그냥 무궁화회는 우리뿐이다. 실제로는 1960년대 도쿄에 또 하나 있었다. 우쓰미 아이코 교수 등 일본인 여성들이 무궁화회를 결성해 재일동포 여성들을 면접 조사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신세타령, 재일 조선 여성의 반생》으로 출간됐다. 도쿄의 무궁화회는 1970년대에 활동을 종료했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지원 활동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간사이 지방 도시산업선교를 하는 단체에 속해 있다. 일본과 한국의 도시·농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다. 내가 처음

● 무궁화회는 격월간으로 기관지 〈무궁화 통신〉을 발행한다. 2011년 3월에 나온 것이 통산 245호다. 출판 사업도 하고 있어 《중국의 조선족》, 소설가 조세희의 작품을 모은 《조세희 소품집》 등을 냈다. 1975년 2월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동아일보〉를 읽는 모임을 결성해 2년간 지속하기도 했다.

1 1978년 한국과 일본 교회의 도시산업선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해 빈민가를 답사하던 히다 유이치(맨 왼쪽) ⓒ히다 유이치

2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만든 고베 외국인학교 지원 모임 10주년 기념 집회 ⓒ히다 유이치

한국에 간 것은 1978년 5월이다. 제1회 일한 URM(Urban Rural Mission) 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산하 도시농촌선교위원회가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동일방직 노동쟁의가 한창 벌어지던 무렵이다. 당시 동일방직 노조를 지원하는 운동을 하던 조화순 목사도 만났다. 일한 URM 협의회는 지금도 2~3년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오가며 회의를 한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문제 대처가 중요 현안이었던 때라 처음에는 URM이라 하지 않고 UIM(Urban Industrial Mission)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의 방한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일본 기독교 그룹의 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YH 무역사건 때도 갔고, 박형규 목사 같은 유명한 분도 오래전부터 만났다. 일한 URM 협의회는 2008년 교토에서 모임을 가졌고, 2010년에는 제주도에서 만났다.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견제나 탄압을 받은 일이 있나?

1978년에 도시산업선교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3년간 비자가 나오지 않은 이들이 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 같다. 1981년 다시 한국에 갔을 때 한국 NCC가 막후에서 정부와 교섭을 벌여 비자를 받기도 했다. 한국에 갔다가 귀국길에 연행된 사람도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 투쟁 지원을 하며 쌓은 연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

우리는 주로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했는데, 한국에서 농민

• 일본 NCC 본부는 도쿄에 있지만, 도시농촌선교위원회는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운동 지도자들이 유기농 실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함평 고구마 사건의 지도자들이 온 것이 1980년께다. 이곳의 유기농 단체와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그때부터 아주 가깝다. 가톨릭 농민회 활동이 아주 활발했을 때는 40~50명이 왔다. 그럴 때면 이곳 센터에서 조선어 강좌를 하는 사람이 통역을 했다. 그 후에는 한국 개신교 그룹도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처음에는 가톨릭 농민회 그룹에 섞여서 왔다. 지금도 이런 연계가 계속되고 있다. 명동성당 소비생활조합에서도 해마다 온다.

특별한 지역적 배경이 있나?

고베 대학에 야스다 시게루保田茂라는 농업학자가 있다. 지금은 은퇴해 명예교수로 있지만 유기농업학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초대 관장과 야스다 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농민들을 설득하는 영상 자료도 만들었다. 1973년에 센터에서 식품 공해 강좌가 개설됐고, '효고 현 유기농업연구회' 창립 모임도 여기서 열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빠른 편이다. 유기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룹과 소비하는 그룹이 빠른 시기에 움직인 것이다.

한국의 가톨릭 농민회는 어떤 계기로 이곳을 찾아왔나?

가톨릭 농민회는 처음에 원로 농학자이자 베트남 반전평화운동 지도자였던 이누마 지로飯沼二郎 교토 대학 명예교수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누마 교수가 이곳을 거점으로 교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왔다고 들었다. 나도 유기농 생산 그룹, 소비자 그룹 관계로 한국에 갔다 오곤 했다.

민단과 총련 사이에서 재일동포 문제를 다루는 게 어렵지 않았나?

우리는 남과 북 양쪽에서 비난받았다. 한쪽에서는 북의 앞잡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남쪽 정보기관과 연관된 조직이라고 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처음에 고베 한국총영사관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불러서 센터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무리해서라도 일본인 입장에서 한반도 전체를 본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총련에서는 왜 남한의 앞잡이라고 그랬나?

민단과 총련이 격렬하게 다툴 때는 그런 식으로 봤다. 총련은 북을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들은 끌어당기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적으로 돌려버린다. 그렇지만 우리 모임이 고베 전철 터널 공사 때 희생된 한국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석비 제막식을 1996년 11월에 열었을 때는 민단과 총련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총영사관에서도 왔다.

북한의 협회나 단체와도 교류하나?

나는 이곳 센터의 관광 일정으로 북한에 한 번 가봤을 뿐 특별한 교류는 없다. 도쿄에 '도미사카富坂 기독교 센터'가 있는데 세미나도 하고 연구소 역할도 한다. 그곳에서 북한에 관한 책《북한의 식량 위기와 기독교》(2008)를 냈다. 나도 연구 팀에 들어가 탈북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북한에 수재 피해가 심각했을 때 지원 운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관계는 없다.

《일제하 조선 농민운동》이란 책을 냈던데, 전문 연구서인가?

그렇다.

활동가인가, 연구자인가?

대학 때 식민지 조선의 좌익 농민운동을 공부했다. 당시는 한국 연구자가 그런 주제로 쓸 수 없었던 시절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가치 있었다. 빨리 책을 낼 수 있었다. 그것으로 농민운동 연구는 끝이다.(웃음)

평생 재일 조선인 문제를 다뤄온 셈인데,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나?

그것과는 관계없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헤이렌 그룹 안에서 무궁화회가 생겼다. 거기서 일본인의 책임으로 자이니치, 조선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일본의 출입국 관리 체제가 재일동포들에게 더욱 혹독해지는 시기였다. '입관법入管法'(정식 명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악 반대 투쟁이 벌어졌는데, 재일동포나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의 투쟁 방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다. 제멋대로 투쟁을 벌였다가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활동가 사이에 각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였다. 지금은 같이 하지만, 그때는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규탄하곤 했다. 그 때문에 그만둔 활동가들도 있다. 그래서 청년 시절 처음부터 각오를 분명히 하고 이 주제를 붙잡고 나가자고 결심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지금까지 한국에

60~70회는 간 것 같다.

베헤이렌 활동은 언제부터 했나?

대학 1학년 때인 1969년부터 했을 것이다. 중학교 때는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대학에서는 처음부터 학생운동을 하겠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런 의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도쿄 대학 분쟁을 보고 학생 쪽이 옳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자이니치와 사귄 건가?

주변에 조선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스즈키 고조 목사다. 왜 유명한가 하면, 일본의 기독교 교파들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1941년 6월 '일본기독교단'이라는 통합 교단을 만들었는데, 당시 총간사로서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전시하 기독교 저항의 기록에서 저항하지 않은 대표의 한 사람인 셈이다. 내가 소학교 3학년 무렵 돌아가셨다. 나는 1년에 두 번만 교회에 간다.(웃음)

센터가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 운동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나?

센터는 기본적으로 세미나를 할 뿐이다. 그리고 환경, 조선사, 기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유학생 지원 사업을 한다. 이 지역에서 과거에 있었던 강제연행 희생자를 조사하고 추도비를 건립하는 등의 일은 사무소가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센터가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관장으로서 그런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다. 옛날에 지문 날인 거부 운동도 사무소가 이곳에 있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도 센터의 사업은 아니다. 여기에 사무소를 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외부 사람이 보면 관장으로서 하는 일과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구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하다. 기독교 교단에서 나와 새로운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단절된 상태다. 나도 교단 효고 총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보고 의무는 없다. 기독교계 내에서는 '사회파' 일부 목사들이 센터를 멋대로 사물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난징 대학살 같은 자료 전시회를 하면 우익 단체가 몰려오지 않나?

우리는 워낙 알려져서 그런지 오지 않는다. 새로운 단체가 그런 운동을 하면 찾아오거나 엄청나게 전화를 걸어온다고 한다.

재정은 완전히 독립돼 있나?

그렇다. 외부 지원이 없다. 그래서 거의 40년간 무너지지 않고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직원은 나를 포함해 세 명이다. 이곳은 회의장이 있고 숙박 시설이 있으니, 시민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데 여기만큼 편리한 곳이 없다. 나도 비즈니스를 해야 하니까 가능한 한 전국집회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강제연행진상조사 네트워크, 외국인학교전국대회, 이주노동자전국대회 등 내가 관련된 일

이라면 여기로 불러 합숙하며 세미나를 한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센터에 있으니 연락하기에도 편리하다. 새로운 시민운동을 하려면 늘 사무실이 문제 아닌가.

앞으로 한일 시민단체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사실을 조사해 공유하는 것이 중대한 전제다. 이것이 없으면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다. 신뢰 관계를 깊게 다져서, 크게 말하면 각기 국익을 넘어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장면1›

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조선인 노동자상'과 고베 항 '평화비'

일본제국주의가 할퀸 상처가 옛 식민지와 점령 지역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제연행과 노예 노동은 일본 본토 곳곳에서 자행됐다. 하지만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공적 시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시설은 대부분 원폭 투하, 연합군 공습에 따른 자국민 피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인을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부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일제 침략을 받았던 나라의 국민에게는 오히려 큰 거부감을 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고베의 경험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치밀하게 조사해 관련 기업 및 행정 당국과 끈질기게 교섭을 벌여 화해를 위한 추도비를 건립한 것이다.

1996년 11월 고베 시 효고 구 에게야마會下山에 '고베 전철 부설 공사 조선인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오키나와의 반전평화운동가로 유명한 긴조 미노루金城實라는 조각가 작품이다. 오키나와의 외딴 섬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은 그는 2007년 오키나와 요미탄讀谷 비행장 터에 '전쟁과 인간'이라는 대형 부조물(릴리프)을 설치하기도 했다. 10년에 걸쳐 완성했다는 이 부조물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단 자결 등이 묘사돼 있으며, 그 길이가 100미터에 달한다.

'조선인 노동자상'은 아이나藍那 터널 붕괴 사고 60주년을 맞아 설립됐다. 1936년 11월 25일 오전 0시 40분 고베 시 북서쪽 산간 지대의 터널 굴

착 작업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 부설 공사를 하던 조선인 노동자 열한 명이 흙더미에 생매장됐으며, 이 중 여섯 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는 최연소자가 24세, 최고령자가 47세로 20대에서 40대까지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변을 당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출신의 김봉두(47)와 김동계(25)는 부자 사이였다. 당시 사고를 전한 〈고베신문〉은 돌 더미와 진흙탕 속에서 주검 여섯 구를 끌어냈고, 눈을 감아야 할 정도로 현장이 참담했다고 보도했다.

참혹한 사고에도 공사는 강행됐다. 1938년 스즈란다이鈴蘭臺와 미키三木를 연결하는 미키선(현재의 아오쿠사生선)이 개통됐다. 이보다 10년 앞서 고베 시의 미나토가와湊川와 아리마有馬를 잇는 아리마선이 1928년에 완공돼 영업을 시작했다. 두 전철 노선은 모두 고베 전철의 전신인 미키 전철과 신유神有 전철회사가 건설한 것이다. 미키선은 아리마선의 중간 역인 스즈란단이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지선인 셈이다.

현재 두 노선의 총길이는 52킬로미터에 이르는데, 경사 구간이 84퍼센트를 차지한다. 1킬로미터 갈 때 50미터의 고도차가 벌어지는 급경사가 27.4퍼센트다. 고베 전철의 고베 시 중심부 쪽 기점 역인 미나토가와에서 전철이 출발하면 계속 올라간다. 궤도의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은 부설 공사 당시 그만큼 작업 환경이 혹독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난공사의 주력으로 투입된 인부들이 바로 조선인 노동자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빈한한 농촌, 산간 지역이 새로운 주택지로 개발됐다. 쾌적한 교외에 살면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 지역의 일본인 가운데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레일이 깔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키선이 개통된 후 아이나 터널에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얘기가 한

동안 돌았지만, 서서히 잊혔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치른 희생은 터널 붕괴 사고 이후 거의 50년이 지나 다시 거론됐다. 1980년대 들어 고베 전철 노선 공사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쟁의가 빈발했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효고 조선관계연구회'의 활동가 등을 비롯한 동포와 일본인 연구자들이 당시 신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1927년부터 1936년 사이에 인명 사고가 다섯 차례 발생해 조선인 노동자 열세 명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들의 넋을 달래줄 추도비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고베 지역에서 조선사 연구나 재일동포 문제를 다뤄오던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됐다. 1993년 봄, 관련 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이 모여 몇 차례 준비 모임을 가진 끝에 그해 7월 '고베 전철 부설 공사 조선인 희생자를 조사하고 추도하는 모임(이하 추도하는 모임)'이 정식 발족했다. 고베 시와 효고현의 향토사를 꾸준히 연구해온 오치아이 시게노부落合重信가 대표,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오치아이는 야간 중학을 나와 고베 시립 도서관 등에 근무하면서 지역의 향토사와 함께 부락민, 재일 조선인 등 사회적 소수 문제를 쭉 연구해왔다. 고베 시청에서 《고베 시사市史》를 편찬했고, '고베사학회'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1960년대 초반 민족학교를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인 1948년의 한신 교육투쟁에 관한 글을 여러 편 썼다. 1988년 아카시 서점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집 《재일 조선인 민족교육투쟁 자료집-4·24 한신 교육투쟁을 중심으로》에도 실려 있다. 그는 여든이 넘은 고령이지만 추도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았다. 간암이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내색하지 않고 대표를 맡아 행정 당국이나 고베 전철과의 교섭 때는 직접 나섰다. 그는 평소

에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일본에도 파급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런 시민 운동이 '일본 내 분단 상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추도하는 모임은 조선인 희생자 열세 명의 유족을 찾기 위해 사고 당시 신문에 보도된 본적지 면사무소로 조회를 요청했다. 이 중 세 명의 유족이 확인됐다. 고베 전철은 해마다 8월이면 고류사興隆寺에서 회사 관련 희생자의 추도 법회를 연다. 추도하는 모임은 조선인 희생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법회에 유족을 초청하도록 고베 전철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베 전철은 추도 법회의 대상이 재직 중 사망한 임직원이기 때문에 부설 공사 때 숨진 조선인 노동자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추도하는 모임이 다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자, 고베 전철은 고류사의 〈과거장〉 명부에 희생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추도 행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1994년 8월 28일 함께 변을 당한 김봉두, 김동계 부자의 유족 등 네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류사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 법회가 열렸다. 당초 하청 기업의 공사였다며 발을 빼던 고베 전철 대표도 자리에 나왔다.

추도하는 모임은 터널 사고 60돌이 되는 1996년에 추도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600만 엔의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선인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해마다 10월 세 번째 일요일에 이 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모임의 대표를 맡았던 오치아이는 추도 조형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95년 2월에 세상을 떠났다.

고베 전철 조선인 희생자 기념물이 완공된 후,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고베 학생청년센터에는 중국인 중심의 연구 모임이 있다. 정식 명칭은 '고베와 난징을 잇는 모임'으로, 1997년 2

월에 결성됐다. 이들은 옛 일본군의 난징 학살, 세균전 실험을 한 731부대의 만행 등을 조사한다. 이 모임은 약 10개월 전 '마루키 이리—도시와 뉴욕 화가들이 그린 난징 1937 회화전'을 개최한 고베실행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마루키 이리丸木位里와 마루키 도시丸木俊는 전쟁의 참상을 그려온 부부 화가다. 히로시마 현 아사安佐 군(현재 히로시마 시 아사 북구) 출신인 마루키 이리는 전쟁 말기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자 아내와 함께 부모가 사는 히로시마 시 교외로 달려갔다. 부부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면서 목격한 참상을 토대로 하여 1950년 〈원폭도原爆圖〉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연작을 계속 그렸다. 〈원폭도〉 연작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순회 전시됐다. 부부의 공동 작품으로 〈난징 대학살도〉, 환경 공해를 다룬 〈미나마타도〉 등이 있는데, 1967년 사이타마 현 히가시마쓰야마東松山에 세워진 '원폭도 마루키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마루키 이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고베와 난징을 잇는 모임의 회원 가운데 오사카 지역의 중국인 연행을 연구해온 사람이 있었다. 그가 고베 항에서도 중국인들의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말을 꺼내 고베의 강제연행 문제를 조사해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베 화교총회 등 중국인 관련 단체와 효고 조선관계연구회, 무궁화회 관계자들이 모여 1999년 10월 '전시하 고베 항 조선인, 중국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이 출범했다. 대표는 야스이 산키치安井三吉 고베 대학 교수, 부대표는 재일동포와 화교가 공동으로 맡았다. 사무국장은 이번에도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이 담당하게 됐다.

야스이 교수는 도쿄 대학 출신의 중국 근현대사, 일중 관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다. 1972년 고베 대학 강사로 부임한 이래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중 관계 연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04년 퇴직한 뒤에도 '고베 화교역사박물관' 연구실장을 맡았다. 그의 저서 가운데는《쑨원孫文과 고베》(1985)도 있다. 쑨원은 1924년 11월 화교와 무역상이 많았던 고베를 방문해 열광적으로 환영받았다. 그의 유명한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당시 고베 고등여학교 강당에서 한 것이다. 쑨원이 '아직 혁명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베이징에서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의 일이다. 쑨원은 생전에 고베를 열여덟 차례나 방문했고, 일본 유일의 쑨원 기념관도 고베 시에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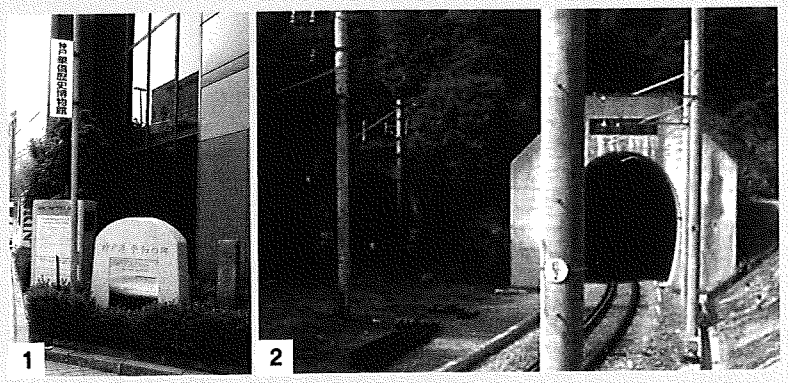
전시하 고베 항 조선인, 중국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이 발족하기 이전에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다. 모임의 회원은 단체 대표를 포함해 15명 정도였다. 전문 학자는 야스이 교수뿐이었고, 공무원, 신문 기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고베 전철 때의 조선인 희생자들을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조사 활동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진행됐다. 매달 한 번씩 고베 학생청년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조사 성과를 정리했다. 전체 집회를 할 때는 40~50명까지 모였다.

조선인 연행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에 총련계 중심의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이 조사를 한 것이 있어 일부가《고베 시사》에 인용되기도 했다. 고베 전철 조사 모임에서 첫 대표를 맡았던 오치아이 노부시게가 시 역사에 관한 공식 문헌에 기재한 것이다. 모임의 회원 중에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의 고베 사무소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있어 연합군 포로의 강제사역 문제도 조사했다.

조사 성과는 깔끔하게 정리돼 책으로 출판됐다. 2004년 1월 347쪽 분량의《고베 항 강제연행의 기록—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가 아카시 서점에서 출판됐다. 분야별 논문과 증언들이 실렸다. 또한 학생들이 부교재로 쓸 수 있도록 편집한《아시아·태평양전쟁과 고베 항—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가 바로 나왔다. 31쪽으로 압축한 것이다. 고베 학생청년센터는 그해 3월 고베 항에서 노예 노동에 종사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인 존 레인John Lane의 포로 생활 기록인《여름은 다시 온다Summer will come again》를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1922년 영국에서 태어나 열 살 때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간 레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징집돼 1941년 싱가포르에서 포로가 됐다. 얼마 되지 않아 일본으로 이송돼 3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고베에서 2년간 수용됐다. 고베 학생청년센터는 일본어판 출판을 계기로 레인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고베 항 조사 모임은 관련 자료 출판이 끝나자 추도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서는 한편, 시 당국과 교섭을 벌여 부지 확보에 나섰다. 고베 시 당국은 고베 전철 조선인 희생자 조형물 건립 때는 토지 사용을 허가해주었으나, 고베 항의 경우는 협조를 거부했다. 당국과의 협상이 계속 겉돌자 고베 항에 인접한 '고베 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 빌딩 앞에 세우기로 했다. 2008년 7월 21일 '고베 항 평화비' 제막식이 중국인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민단과 총련 간부, 한국총영사관 영사, 고베 화교총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높이 약 125센티미터, 폭 약 120센티미터의 화강암에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짧은 추도문이 새겨졌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고베 항에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인, 조선인, 연합군 포로가 항만 하역이나 조선 등의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해



1 고베 화교역사박물관 앞에 세워진 고베 항 평화비

2 현 고베 전철의 난공사 구간이던 아이나 터널. 1936년 11월 붕괴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노동자 열한 명이 생매장됐다가 여섯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마음에 새겨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맹세하며 여기에 이 비를 세웠습니다."

고베 항에 강제 연행돼 사역한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는 적어도 5700명 이상이며, 이 중 사망자가 2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비 옆에는 '비핵 고베 방식非核神戶方式의 비'가 있다. 1975년 3월 고베 시의회의 결의로 세워진 이 비에는 '핵병기 탑재 함정의 고베 항 입항을 일체 금지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은 고베 항 평화비가 현장 학습의 좋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현장 탐방을 하거나 대학에서 세미나 주제로 다뤄진다고 했다. 국제항으로 눈부시게 발전해온 고베 항에 이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 전달해,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산 교육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면2›

히타치 취직 차별 사건과 재일동포 활동가 김영달의 죽음

요즘 한국에서 재일동포 학자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사람은 아마도 강상중 도쿄 대학 교수일 듯싶다. 1950년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태어난 그가 쓴 책은 여러 권이 국내에 번역돼 널리 읽혔다. 알려진 대로 그는 일본에서 최고 권위의 대학이란 상징성을 갖는 도쿄 대학에서 동포로는 처음 교수로 임용됐다.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와 같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유학 후 국제기독교대학 준교수를 거쳐 1998년 도쿄 대학 사회정보연구소 조교수로 채용됐다. 6년 뒤에는 교수로 승진했다.

그가 도쿄 대학 교수진에 진입한 것은 그 자신의 엄청난 노력으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성공한 이면에는 숱한 동포들의 좌절과 투쟁의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일동포로서 귀화하지 않고 일본 변호사 자격을 따낸 첫 사례인 김경득의 투쟁 과정도 만만찮다. 그는 1972년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기까지 일본 이름을 쓰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컸다. 재일동포는 명문 대학을 나와도 증시의 '1부 상장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사법 시험 응시라는 무모한 도전에 나섰다. 1976년 사법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본 국적이 아니면 사법연수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섯 차례에 걸쳐 최고재판소 임용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고재판소는 결국 1977년 그의 입소를 승인했다. 외국인

으로서는 물론 첫 사법 연수생이다. 김경득이 2년 뒤 변호사를 등록하며 길을 뚫자 그의 뒤를 이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재일동포가 10여 명에 이른다. 재일동포 인권 문제나 전후 보상 소송에서 활약했던 그는 아깝게도 50대 중반 나이에 세상을 떴다.

이제 1970년대 초반 재일동포 취직 차별 투쟁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히타치日立 사건을 되돌아보자. 요지는 박종석이라는 동포 청년이 대기업의 하나인 히타치에 일본 사회에서 쓰는 '통명(일본식 이름)'으로 지원 서류를 내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재일동포임이 드러나자 바로 합격이 취소된 것이다. 당시 재일동포 청년이 처한 사회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내부 갈등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박종석은 1951년 아이치 현 니시오西尾에서 동포 2세로 태어났다. 9남매 형제의 막내였다. 경북 출신의 부모는 각기 16세, 13세에 일본으로 와 줄곧 빈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종석이 조선인 차별에 항의하며 시즈오카 현 스마타쿄 온천의 한 여관을 점령해 88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던 김희로 사건(1968년 2월)을 TV 뉴스로 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상시 휴대가 의무화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고 나서야 자신의 한국 이름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진로가 불투명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조그만 공장에 취직을 했을 때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서류를 썼다.

공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히타치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중도 채용 광고를 신문에서 봤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재일동포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자신도 대기업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력서를 쓸 때 고민 끝에 본적란에 현재의 거주지를 써서 지원 서류를 냈다. 그는 1970년 8월 히타치 제작소 소프트웨어 도쓰카戸塚 공장(요코하마 시)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다음 달 채용 통지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구비 서류로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가 재일 한국인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뗄 수 없다고 밝히자 히타치는 바로 채용 취소를 통고했다. '이력서 부실 기재'가 형식상 이유였다.

버젓한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생의 맨 밑바닥에 던져졌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당시 만 19세가 채 되지 않았던 박종석은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도대체 자신의 인생은 뭐가 될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분노를 누를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방도를 찾지 못하던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원군이 생겼다. 요코하마 역 앞에서 헬멧을 쓰고 베트남 전쟁 반대 전단을 돌리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초라한 행색의 조선인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의 좌절과 분노에 공감했다. 유수의 대기업이 취직 차별을 한다는 것에 격분한 이들은 변호사를 물색해 요코하마 지법에 제소하도록 주선해줬다. 박종석의 소송이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국제기독교대학에 재학 중이던 최승구라는 학생이 그를 찾아왔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청년회 대표를 맡고 있었던 최승구는 박종석의 투쟁을 전면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민단이나 총련 등 기존 민족 단체의 반응은 묘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동포 청년의 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판하고 지원을 거부했다. 최승구도 재일대한기독청년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받았다.

히타치는 법정에서 박종석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폈다. 히타치의 행태에 분개한 목사, 교사,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원 단체가 점점 확대돼갔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방청을 시키기도 했다.

民族差別許されぬ
日立が敗訴
朴さんの主張認める
裁判所、朴さんに軍配
主体性回復 の3年半

박종석의 해고가 무효라는 1심 선고를 크게 다룬 일본 신문의 보도들

1973년 11월 도쿄의 히타치 본사 앞에서 규탄 시위가 시작됐다. 일본 언론뿐 아니라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에서 히타치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관심이 집중되자 기존 민족 단체들도 방침을 바꿔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요코하마 지법은 1974년 6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종석은 그해 9월 히타치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그의 투쟁은 일본과 동포 사회에 큰 영향을 남겼다. '민족 차별과 싸우는 연락협의회(민투련)'가 지역별로 구성돼 나중에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종석은 법정 투쟁을 거친 끝에 들어간 히타치에서 2011년 가을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40년 전 그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중의원 의원(민주당)이다. 간 나오토 내각에서 법상과 관방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정권의 실력자로, 2010년 8월 일제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도록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한 그가 변호사 자격을 얻어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이 바로 히타치 소송이다.

한 재일동포 활동가의 죽음

2000년 5월 한 재일동포가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일동포 관련 문헌을 조사하다 보면 이름을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다. 일본에 귀화했으니 법적으로는 일본인이다. 그의 부고를 듣고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들어 나는 〈한겨레〉 신문에 '한 재일동포의 죽음'이라는 칼럼을 썼다. 먼저 당시 썼던 글을 그대로 전재한다.

"재일동포 문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해온 동포 출신 귀화 일본인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효고 현 아마가사키 시에서 홀로 사는 김영달(51) 씨가 8일 저녁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은 연락이 전혀 안 된다는 김씨 누나의 전화를 받은 집주인이 확인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도됐으며 약 2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의 이력을 보면 아이치 현 출신으로 1970년 일본에 귀화했으며 간사이 대학 등의 시간강사를 역임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 '구하라!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렌크)' 대표를 지냈다. 국내의 일부 언론이 김씨의 죽음을 비교적 크게 다룬 것은 그의 타살에 북한이 관련됐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음 직하나, 현재까지 그런 단서는 없다. 렌크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기아선상에 있는 북한 주민의 구출을 주장하는 단체다. 1998년 12월 말 방영돼 충격을 주었던 북한 내 불우청소년들인 이른바 '꽃제비'들의 참상을 담은 테이프는 렌크 관계자들에 의해 반입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독자들에게 낯선 김씨의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그의 삶과 관련된 민족, 분단, 정체성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싶어서다.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나,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93년 봄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던 시절, 나는 재일동포 문제들을 해부해 보기 위해 재일동포, 일본인, 재일 외국인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동포 1세의 강제연행, 민족 차별 등 다소 진부한 시각에서 벗어나 자녀 교육, 결혼, 본명 등 정체성 찾기, 지역 운동, 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포들의 삶에 접근해보려는 의도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골 아픈 주제가 동포 사회의 일각을 붕괴시켜가는 귀화 문제였다. 해마다 수많은 동포가 귀화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체계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수소문 끝에 김영달이란 분이 1970년대 말 일본의 귀화 행정에 관한 책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효고 현에 살고 있다는 그의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린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씨가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분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전화번호를 잘못 안 것으로 생각해 다른 경로를 통해 그를 접촉했다. 그랬더니 고베 시 나가타 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포들의 한마당 행사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보자고 했다.

그는 초등학교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인터뷰에 응한 그는 배타적 동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일본 귀화제도의 문제점을 요령 있게 설명했다.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의 어설픈 선입견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나는 그가 귀화제도의 문제를 파고들고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자료 전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으

레 관습적 의미의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말했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안 계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자, 김영달이란 이름은 동포 관련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할 때만 쓴다고 했다. 스물한 살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귀화했다는 그는 귀화 문제를 파헤친 연유를 묻자, 귀화한 동포를 민족 반역자로 여기는 동포 사회의 풍토가 계기라면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순수 일본인도 아니고, 순수 조선인도 아니기 때문에 한일, 남북한에 얽힌 문제들을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일동포 관련 기사를 쓰면서 그의 이름이나 직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통해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채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동포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 나아가 민족이나 역사란 거대한 수레바퀴 밑에서 개개인의 삶이 마구 휘둘려질 수 있다는 것도."

김영달이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더 들여다보자. 1948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난 김영달은 고베 대학을 나와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재일 코리안'과 관련된 많은 모임에 관여했다. '무궁화회', '효고 조선관계연구회', '재일조선운동사연구회' 등에 꾸준히 나가서 모임을 이끌었고, '추도하는 모임', '전시하 고베 항 조선인, 중국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등 특정 목표를 내건 활동에도 참여했다. 꼼꼼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한 그의 연구 자세는 운동에 큰 버팀목이 됐다.

그는 생전에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다. 《재일 조선인의 귀화, 일본의 귀화 행정에 대한 연구》, 《일본의 지문제도》, 《일조 국교 수립과 재일 조선인의

국적》, 《창씨개명의 연구》, 《GHQ 문서 연구 가이드—재일 조선인 교육 문제》 등의 저서를 냈다. 공저도 많고, 《15년 전쟁 중요 문헌 시리즈 11집 조선징병준비독본》, 《조선인 종군위안부 여자정신대 자료집》 등 자료집도 편집했다. 그가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이나 논문 수는 엄청나다.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의 사후 연구 성과를 '창씨개명', '일본의 귀화 행정',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지문제도', '민적民籍·국적·호적 관계', '한일 관계', '재일 조선인 문제' 등으로 구분해 저술 목록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의 글을 모은 《김영달 저작집》이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아카시 서점에서 세 권으로 나왔다.

김영달은 불의의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귀국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돌아갔던 재일동포들의 불우한 처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북한에 가서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이 적잖았다. 그는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 도쿄 대학 명예교수가 만든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관여하기도 했다. 1994년 2월 도쿄에서 이 모임의 결성 총회가 열렸을 때 김영달이 기조 강연 연사였다.

하지만 '귀국 사업은 무엇이었나'를 연제로 한 그의 강연은 예정 시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끝났다. 개회 선언을 하자마자 강연장 앞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야유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겨우 회순의 마지막 순서인 결성 선언을 읽었을 때 회관 사무처는 집회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 종료를 선언하자 한 50명의 무리가 일제히 빠져나갔다. 전체 참석자가 180명 정도였으니 거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다. 총련이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게 집회 주최 쪽의 주장이었다.

이런 배경들이 있어 김영달의 죽음을 놓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타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과 연관된 조직이 움직였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우익이 김영달의 강제연행과 일본군위안부 조사 활동에 불만을 품고 죽였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의 수사 결과 정치적 동기와는 상관없는 범행으로 드러났다. 범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김영달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작과 글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